

내 삶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

(롬12:1)

서론: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것이 최고의 자존감입니다. 내 삶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해야 하고, 자리 걱정해야 하며,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좌의 망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좌의 망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이며,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며, 생각하는 것이 망대가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좌의 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현실 앞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보좌의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는 것이며,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필요를 본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면 핑계가 나오고 피할 수 없는 곤란들이 계속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1. 단번에 끝내어야 함

- 가. 내 안에 각인 되어 있는 원죄 사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와 사탄 문화, 세상에서 배운 것에 각인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 나. 복음 속에서 숨겨진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나온 문제들로 핑계 대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 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일3:8),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이 되시며(막10:45),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문제 끝내심을 믿는 믿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2. 삶의 기도 - 언제?

- 가. 나의 삶을 살리는 기도를 통해 현실에 부딪혀 속지 않게 하시고, 삶의 기도가 리듬이 되며, 시스템이 되어질 만큼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 나. 아침에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시간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낮에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만남을 살리며, 밤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 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집중 안 해도 되는 것을 안 하는 시간 관리를 통해 아침과 낮과 밤에 삶의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결론: 내 삶에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나가면 모든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잡히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않고, 문제가 기회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모든 만남을 응답으로, 모든 사건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내 삶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